

종립학교 포교 '제자리 걸음'

무종교 신입생 졸업때까지 '불교입문' 거의 안해 교법사 역할 강화...교학 수업 질향상 대책 절실

종립학교 운영현황 자료집서 밝혀

불교종립학교 신입생의 25-30%가 무종교 학생이며 이들의 비율이 졸업시에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 종립학교 교학 수업이 포교에 영향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청담고교의 경우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종립학교에 다니면서 불교를 신앙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75%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가 발간한 '종립학교 운영현황 자료집'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연도별·학년별 종교활동현황에서 종립중·고의 신입생종교불학생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도 불교를 신봉하는 학생수는 제자리걸음을거나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료집 발간 관계자들은 전체 종립학교가 안고 있는 교학수업의 한계성과 그에 따른 질적 저하, 그리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법사의 지위 및 역할 저하, 종단의 지원과 협력부족 등을 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종립학교 교법사 수는 모두 29명(학교당 1.3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맡고 있는 교학수업은 주평균 15시간, 이의 일반수업도 10시간에 달해 평균보다 많은 수업을 맡고 있으며 수업외적인 포교활동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는 9개 학교법인 산하에 대학, 고교 11, 중학교, 국공립 26개교, 반면에 개신교는 대학 및 신학대

학 31개교를 포함 278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카톨릭도 9개 대학을 포함 모두 80여개의 종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타종교의 종립학교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와 계획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교계 종립학교의 불교교육은 새로운 지도방침과 운영효과 설정이 시급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자료집은 21세기 동국발전 기본계획과 관련, 불교종합법인 건립 및 일산 자연과학신캠퍼스 건설사업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동국발전의 제2도약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영우 기자



달라이라마가 몽골 울란바토르 간담사에서 탄트라 최상의 수행법인 칼라차크라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술 적게 마시고 불행한 아이 돌보자"

달라이라마 몽골서 대전수석 봉행

티벳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지난달 31일부터 14일동안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간담사에서 칼라차크라 대전수석을 봉행했다.



지구촌 불교

달라이 라마는 대전수석에 앞서 3일동안 외부 접촉을 끊고 간담사 대천칼과 법당에서 새벽부터 몽골의 고승들과 준비의식을 집전하며 기도정진했다. 이어 5일간 몽골불자들을 대상으로 칼라차크라 법회를 실시했다.

달라이라마는 법회에서 "술을 적게마시고 버려지거나 불행한 아이들을 보살피라 한다"고 말하고 "티벳과 몽골은 불교형제국으로 서로 도와 부처님법을 펼치자"고 당부했다.

美방문 티벳 독립 호소

달라이 라마는 지난 6일부터 10일간 미국을 방문하여 중국에 강제합방된 지 30주년이 되는 티벳의 독립문제를 국제화시키기 위한 각계접촉을 가졌다. 방문중 달라이 라마는 클린턴대통령 및 고여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인들과 언론이 티벳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백악관측은 "클린턴대통령은 티벳의 종교와 문화 보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달라이 라마와의 현안해결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클린턴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면담한 것과 관련 "이는 내정간섭이자 중국분할행동에 대한 지지"라고 비난하고 미국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주목된다.

“언어·풍토 민족따라 불교 수용 달라”

이 서로 다른데서 생기는 모든 여건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교가 전해지는 방향과 풍토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 책은 신라에서 중국 천축으로 통하는 길, 중국 선종사에 있어서의 남북문제, 육론의 해도를 통해 들어온 일본 불교 비교 등 한국 중국 일본 불교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삼국의 불교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다.

“백양사의 전통다비”

시네아트 비디오 출시

시네아트는 지난 16일 다큐멘터리 '백양사의 전통다비'를 비디오로 출시했다.

임담대중사, 백양사, 다비장 3장으로 구성된 43분 분량의 이 비디오는 문화재적 유물·유적의 가치가 있는 백양사의 전통다비식을 담고 있다.

부처님 방송에 컴퓨터통신 '일조'

btn, BBS 'PC 참여코너' 시·청취율 높아

'컴퓨터 통신을 통해 사연을 보내고 노래를 신청하고 프로그램 함께 만들어간다.'

오름들어 부처님 방송은 컴퓨터와 방송이 만나는 현장이다.

BBS는 '살며생각하며' '자비의 정화' '거룩한 만남' '퀴즈대장' '언제나 푸른불교'가 btn은 '자비의 천수천안' 'TV신생상담' 이 시·청취자와 프로그램 참여코너를 통해 만나고 있다.

'살며생각하며'의 경우는 개설 2달만에 1백여건의 사연을 접수받는데 불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컴퓨터 통신을 통한 방송참여는 난시청지역의 불자와 컴퓨터를 이용한 젊은 불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 청취자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컴퓨터 방송은 방송 감시기능도 특별히 해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송된 MBC-



여래종 만덕사 기공식이 지난 19일 봉행됐다.

여래종 총본산 만덕사 기공

19일 옥천서...대웅전·강원·납골당 등 갖춰

여래종이 총본산 건립과 함께 종단 위상제고에 나섰다.

여래종(총무원장 김범우)은 지난 19일 오전11시 총본산 만덕사 기공식을 중계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각종단 스님들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됐다.

종단의 속원 사업인 총본산 만덕사는 충북 옥천군 동이면 산71번지 일대 약217천평의 대지에 대웅전을 비롯 강원, 복지사실, 납골당, 청동약사대불, 5여래 1'13천불 등을 갖추게 된다.

총무원장 김범우스님은 대회사 통해 "이번 만덕사 건립은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세계불교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 며 전통도들이 한마음으로 총본산 건립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총본산 만덕사 기공식에 이어 석인왕스님과 스리랑카 단마루키스님등 동남아시아 3명을

“세계종교협력기구 창설 제창”

원불교 이좌산 종법사 국내 첫 종교인 유엔 연설

원불교 이좌산(左山)종법사가 국내종교인으로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연설했다. 좌산종법사는 유엔에 버금가는 강력한 세계 종교협력기구(UR) 창설을 제창하면서 세계 각 종교들이 앞장서 인류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종법사의 유엔연설은 유엔비정부기구(NGO)회원종교 NGO와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가 유엔창설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주최한 '유엔과 세계공동체의 건설'이란 강연회 형식으로 치러졌다.

지난 22일 오전10시 유엔엔터 제회의실에서 '세계공동체 건설을 위한 종교간의 협력'을 주제로 연설한 이좌산 종법사는 "이제 세계는 언어 피부색을 넘어 서로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돕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꾸어 나갈때 세계공동체 건설



日 정치인 민주사회속 종교부정 '파문'

일본 자민당의 가토우씨(加藤)가 지난 3일 기자회견의 간담회에서 "종교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서로 양립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소리가 일고 있다.

가토우씨의 이번 발언과 관련된 종교계는 단순히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원인이라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짓밟는 문제로 간주,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입교대학의 스즈키교수는 "가토우씨의 이번 발언은 헌법에 정해진 종교의 자유를 역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만 그의 발언은 종교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토우씨의 발언은 29일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의 '종교법안법 개정안' 제정과 관련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수미 기자

성명서

- 해인골프장 건설 강행하려는 (주)가야개발을 규탄한다.
- 해인골프장 사업승인취소 재결에 대한 (주)가야개발 재결취소 소송에 관한 우리의 입장

94년 12월 24일, 가야산 국립공원 백운리 일대 48만 평의 해인골프장 건설계획이 승인된 이후 주민생존위협은 물론이고 대규모 산림파괴를 야기할 해인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투쟁위와 시민, 환경단체의 연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골프장 반대 투쟁의 결과 지난 7월 5일 문화체육부는 가야산 국립공원 안에 (주)가야개발이 건설하려고 계획한 해인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가야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이 국민 전체의 공익에 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민정서 및 변화된 행태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연환경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므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문화체육부의 결정은 반이성적 개발논리로 무장한 정부당국의 변화된 사고의 시발이라는 점과 국립공원의 공익성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시민, 환경단체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주)가야개발이 문제부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 해인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8월 24일)하였다.

(주)가야개발은 여전히 해인골프장 건설로 인한 고령군 주민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국민정서와 변화된 합목적성"에 위배된다는 문제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도대체 국민정서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행정심판이 국민정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해괴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여론쯤이야 알뜰하지 무시할 수 있다는 저급한 자본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국립공원이 일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공유자산이며,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는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지 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주)가야개발의 해인골프장사업계획취소 재결취소 청구소송이 국민기본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해인골프장 건설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아울러 골프장 건설반대투쟁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여 지역주민들간의 분쟁을 조장하고 그 속에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어떠한 책동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지방세를 높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성주군 일대에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해 지역주민의 생활을 크게 위협할 것이 틀림 없는 해인골프장 건설을 추진

하려는 성주군은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가야산 일대의 생태계에 엄청난 파괴를 몰고올 백운리 일대 약 150만평 규모의 대단위 종합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주)가야개발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재결 취소청구소>를 취하하라
- (주)가야개발은 해인골프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성주군은 가야산 일대의 생태계를 파괴할 가야산 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경상북도는 가야산 국립공원을 보존할 중, 장기대책을 수립하라
-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지 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역 투쟁위와 20만 대구시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지 지 공동대책위원회